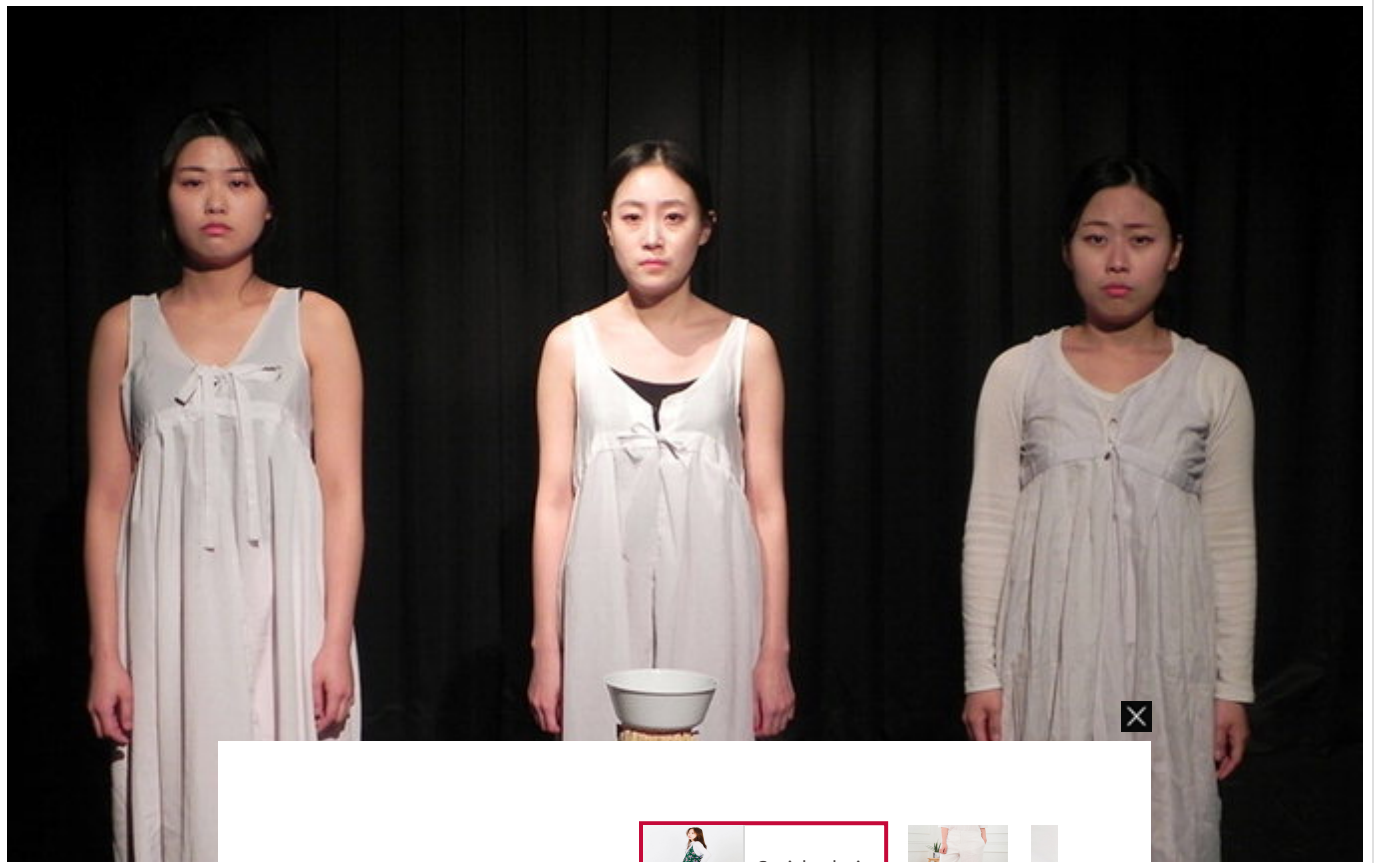


공짜 연극 보고 쪽방촌도 돕고...대구 극단 대표작 열전

공연·전시

최미애기자 2017-05-11

[기자가 쓴기사 더보기](#)





대구지역 극단의 대표작을 볼 수 있는 ‘대구 극단 대표작 열전’이 13일부터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쪽부터) 극단 예전의 ‘내 이름은 조센삐’, 맥 시어터의 ‘사랑꽃’, 극단 한울림의 ‘호야 내새끼’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 사무국 제공>

대구 지역 극단들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대구 극단 대표작 열전’이 오는 13일부터 대명공연 문화거리 내 소극장과 대구 시내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다음 달 대구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앞두고 열리는 행사다.

‘대구 극단 대표작 열전’에서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극단들의 저력을 엿볼 수 있다. 대구의 11개 극단이 누적 공연 횟수 50회가 넘는 대표 레퍼토리들을 선보인다. 코믹극부터 역사극, 가족극, 로맨스극, 난버벌극, 뮤지컬까지 장르가 다양하다. 무료 공연으로 라면, 비누, 칫솔 등의 생필품을 가져오면 대구쪽방상당소에 기부한다.

11개 극단 13일부터 한달여 공연
첫 작품 이송희레퍼터리 ‘북경반점’
“라면·비누 등 생필품 기부하세요”

첫 공연은 13~14일 빈티지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극단 이송희레퍼터리의 ‘북경반점’이다. 노래와 춤이 곁들여지는 형태로 중국 음식점을 배경으로 온갖 군상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같은 기간 극단 처용은 연극 ‘일요일 손님’을 우전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는 신혼부부의 집에 연락도 없이 누군가 불쑥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17~19일에는 극단 예전의 ‘내 이름은 조센삐’가 예전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드라마 형식으로 전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다.

공연제작 액터스토리는 18~20일 예술극장 액터스토리에서 노래극 ‘개장수’를 선보인다. 중장년층에 익숙한 가요를 통해 6·25전쟁, 광주 민주화운동 등 개장수 최노인이 겪어야 했던 굵직한 현대사를 보여준다.

19~20일에는 극단 한울림의 연극 ‘호야 내새끼’가 한울림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담았다.

26~27일 꿈꾸는 씨어터에서 공연되는 맥시어터의 뮤지컬 ‘사랑꽃’은 전쟁으로 인한 사랑의 아픔을 비롯해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다.

대한민국연극제 기간(6월2~20일)에도 공연은 이어진다.

극단 사랑의 ‘마냥 씩씩한 로맨스’는 다음 달 1~3일 예전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재수생 시절 만난 두 남녀가 세월이 흐른 후 옥상에서 재회하면서 겪게 되는 성장통을 그린 작품이다.

초이스씨어터가 2~3일 ‘오비이락’을 공연예술보호구역 아트벙커 무대에 올린다. 연애 운명론자인 오비와 현실론자인 이락의 만남과 연애를 그린다. 극단 온누리는 9~10일 예술극장 온에서 ‘아들은 엄마의 나이를 모른다’를 공연한다. 엄마의 나이를 모른다는 무심한 아들과 언제나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의 이야기다.

극단 연인무대는 제19회 전국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돼지사냥’을 10~11일 우전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두 마리의 돼지를 쫓는 해프닝을 중심으로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바라보게 하는 작품이다.

극단 기차의 ‘구름에 걸린 구두’는 내달 3~4일과 10~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야외특설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작은 구둣방을 운영하는 김노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년버벌극이다.

대한민국연극제의 또 다른 연계 공연인 ‘시민연극전’도 5월12~28일 대명공연문화거리 내 소극장과 북구어울아트센터에서 마련된다. 지역 주민들이 무대에 오르는 ‘생활연극전: 인생은 아름다워!’와 대구·경북 대학 연극동아리의 공연 ‘대학극열전’의 두 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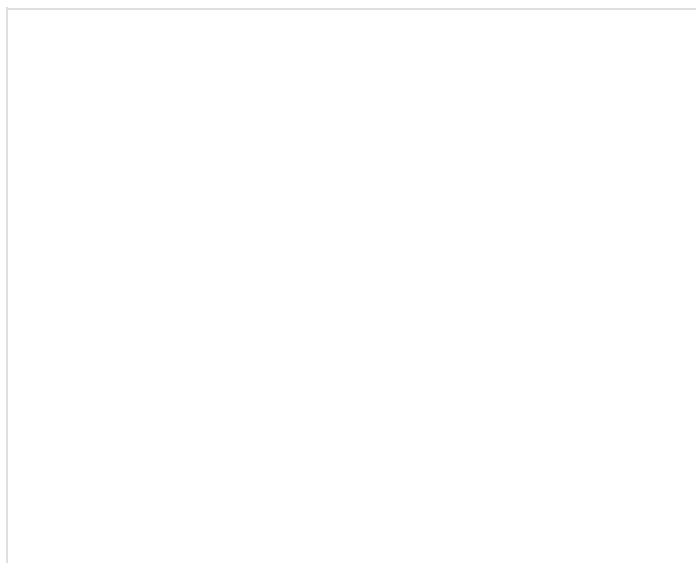
남구 대명동의 마실극단 남풍과 신뜨름은 각각 ‘울고넘는 박달재’와 ‘미녀전’을 선보인다.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청춘어울극단은 마당놀이 ‘얼쑤 배비장’을 공연한다.

대학극열전에는 대구대 비호극회의 ‘올모스트 메인’, 경북대 연극반의 ‘말 다리를 부러뜨리고 추는 춤’, 경일대 열린무대의 ‘꿈꾸는 별들’, 영남대 천마극단의 ‘아모르 파티’, 계명대 계명극예술연구회의 ‘불 좀 꺼주세요’가 무대에 오른다. 전석 8천원. 생활연극전은 무료.

(053)255-2555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대구 극단 대표작 열전			
작품	단체	공연장	공연일시
북경반점	극단 이송희레퍼터리	빈티지소극장	5월13~14일
일요일 손님	극단 처용	우전소극장	5월13~14일
내 이름은 조센삐	극단 예전	예전아트홀	5월17~19일
개장수	공연제작 액터스토리	예술극장 액터스토리	5월18~20일
호야 내새끼	극단 한울림	한울림 소극장	5월19~20일
뮤지컬<사랑꽃>	맥 시어터	꿈꾸는 씨어터	5월26~27일
마냥 씩씩한 로맨스	극단 사랑	예전아트홀	6월1~3일
오비이락	초이스시어터	공연예술보호구역 아트벙커	6월2~3일
아들은 엄마의 나이를 모른다	극단 온누리	예술극장 온	6월9~10일
돼지사냥	극단 연인무대	우전소극장	6월10~11일
구름에 걸린 구두	극단 기차	대구문화예술회관 야외특설무대	6월3~4일, 6월10~11일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